



도통사랑봉사단, 베이킹 봉사활동 참여

남원시 도통동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 도통사랑봉사단을 결성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함께하였다. 단체는 올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 결성했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된 도통사랑봉사단은 봉사활동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빵과 구운과자 200여개를 구워 경로당에 전달하는 '베이킹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직접 만든 빵과 과자를 드리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한 청소년들은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교류를 하고 더불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당부드렸다. 봉사단에 참여한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되어 있어 주로 환경정비 위주인 봉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자 도통동장은 "여름방학 중 청소년들이 봉사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 통사랑봉사단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농촌형 일자리 상생 협약

임실군(군수 심민이)이 지난 10일 임실행복나눔센터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농촌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실군, 임실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동섭), 임실군로컬JOB센터(센터장 조옥선)가 맞춤형 지역 일자리 지원에 대해 논의한 간담회 결과로 체결하게 됐다. 군과 각 센터에서는 구인·구직자 정보 공유, 구직자 발굴 및 일자리 자료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및 농촌일자리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에 참여한 주민이 자활 종료 후 취업 유치가 지속적이며 진행되도록 행정 및 로컬JOB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로컬JOB센터는 저소득층 구직 시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욕구 중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니어대상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로컬JOB센터에 연계하여 맞춤형 지역 일자리로 지역이 활력을 찾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 금산면서 마을행복밥상 과일 지원 진행

김제시 금산면(면장 이승곤)은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영중)와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홍성열)과 함께 마을행복밥상 과일 지원을 진행했다. 마을행복밥상 사업은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홀로 어르신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부바 봉사단은 홀로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 360세대에게, 금산면 지사협은 한부모세대, 조손가족 및 다문화세대 등에게 도시락 반찬 40개를 전달했다. /김제=곽노태기자

“호우 피해 주민 구호에 써주세요”

임실군, 익산시에 성금 675만9000원 전달

임실군(군수 심민이)이 지난 11일 익산시(시장 정현을)에 호우 피해 성금을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임실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이지훈)과 익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한창훈)은 지난 7월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익산시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임실군 공무원 및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75만9,000원을 익산시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 이지훈 공무원노조위원장, 송덕용 공무직노조위원장이 익산시청으로 방문하였고 정현을 시장을 만나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며, 임실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심민 임실군수도 익산시 호우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임실군청 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피해 주민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NGO단체 글로벌쉐어, 기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호우피해 구호물품 익산시에 전달

정현을 익산시장 “수해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 쓰겠다”

국제구호 NGO단체인 글로벌 쉐어는 펠레스 장수철대표, 인그리더언코리아에서 후원받은 총 5,000만원 상당의 호우 피해 구호 물품을 익산시에 전달했다.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식품 전문기업 펠레스에서는 2,200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4,995팩을 기탁했다. 장수철대표에서는 1,500여만원 상당의 면팩트 167개, 전기 매트 30개를 침수 피해 지역민을 위해 전달했다. 인그리더언 코리아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은 성금을 통해 구매한 헛반 320박스과 라면 320박스 1,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기업으로부터 후원물품을 전달해준 글로벌 쉐어는 국제구호 NGO단체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에서도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하며, 각 지자체에 구호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양승철 펠레스 대표는 “뜻밖의 재난재해로 힘겨운 상황에 처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이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창환 장수철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침수 피해로 침구류의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자규 인그리더언 대표는 “인그리더언 코리아의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품들만큼 침수 피해지역에 적절하게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수해 피해 구호를 위해 물품을 기부해준 기업들에 감사하다”며 “이제민들과 자원봉사자 및 수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현대, 익산 저소득 위기가구 위한 성금 기탁

전북현대모터스(대표이사 허병길)는 지난 11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된 성금은 최근 폭우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에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의 일상생활 복구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성금 기탁과 동시에 익산시장의 전북현대모터스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익산시와 구단이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우호적 관계를 토대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며 상생 발전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허병길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저소득 위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기부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자립인 전북 현대와 익산 관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기계협, 순창군에 콩 적심기 기증

농기계 제조업체인 (주)농기계협(대표 조경아)이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들을 위해 써달라며 순창군에 콩 적심기 4대(1,0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주)농기계협은 김제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난 2014년 국내 최초 무인 제조설비로 원격 조종보트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적심기를 기증한 회사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 농가들이 수월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콩 적심기를 기증하게 됐으며 기증배경을 밝혔다. 조경아 대표는 “순창군도 올해 콩 재배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우로 힘들게 영농을 이어가는 농가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 한 분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조경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기증품은 관내 임대사업소 2개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강현신 동문,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강현신(취기능력개발센터 대표·정밀기계공학과 89학번) 동문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5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10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동문의 기부금은 오는 9월 전북대 총학생회사가 기획한 학문체 축제의 부스 운영과 공모전 상금, 학생 간 정보교류에 쓰일 예정이다. 강 동문은 전북대 김동근 교수회장을 통해 총학생회 임원들이 취업 지원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 강현신 동문은 “지방소멸과 청년 취업의 문제는 전북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의 중심인 전북대 후배들이 자기만의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삶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행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한편 강 동문은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1,000명을 대상으로 코딩 기초 교육과정을 무상 지원한다. 코딩 자격증 취득 시 감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정보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수료 자격증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운영관리, 단체 헌혈 실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과 태권도원은 영관리(주)는 지난 11일 태권도원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지난 3월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김성근) 간 체결한 생명 나눔 단체 협약의 연장선상으로 정기적인 헌혈을 통한 혈액 수급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은 헌혈 후 지급받은 개인 헌혈증을 재단에 전달했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를 종합 후 전북 혈액원에 기부할 예정으로 사람 나눔이라는 헌혈의 의미를 더했다. 가장 먼저 헌혈 처방에 오른 서인휘 대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아내와 함께 헌혈을 한다. 건강검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한다는 행복도 느낄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한 이경민 주임은 “조혈모세포 기증은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인생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오늘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헌혈을 통한 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3월 실시한 전반기 헌혈에서 30장의 헌혈증을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아 전북혈액원에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하림, 익산 저소득 위기가구에 5억원 기탁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익산지역 저소득 위기가구에 전달해달라며 5억원의 성금품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하림그룹 측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번에는 폭염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기부하게 되었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금의 성금품을 후원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주신 성금품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군, 스마트강소농 스타트 단계 교육 추진

진안군은 지난 5월부터 딸기 재배농가 및 스마트농업 관심 농가 25명 대상으로 농업 빅데이터 활용과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스마트강소농 스타트 단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스마트 재배기술 20시간 스마트 경영, 마케팅 40시간으로 과정으로 구성했고, 5월부터 10월까지 4시간씩 15회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스마트팜 시스템 운영 및 어플 활용 경영기록 작성 등 9회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도구 활용 실습 및 딸기농가 현장실습 등 6회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영농철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야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은 스마트 경영, 마케팅 부분의 역량향상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 아랑곳없이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앞으로도 스마트강소농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 구성에 힘쓰겠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